

수신 : 원장

참조 : 경영본부장, 센터소장, 동북아팀장

<중국경제동향보고 2001-21>

2001. 5. 16

KIEP 북경사무소

최근의 중국경제 분석과 전망 (Ⅱ)

-사회과학원 춘계보고를 중심으로-

3. 중국경제의 구조조정 방향

가. 지속적인 내수 확대 정책 실시

□ 최근 3년간 중국정부는 확대 재정정책을 실시하여 경기부양에 주력하였으나, 유효수요 부족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.

- 2000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정부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초 목표인 10%에 미달하였으며, 소비자물가는 0.4% 증가하는 데 그쳤음.

○ 작년 소비자물가의 소폭 상승은 주택 및 서비스부문의 가격 조정과 국제 유가 등 수입품 가격 상승에 힘입은 것으로 민간수요의 확대에 기인한 것은 아님.

□ 따라서 내수 확대 정책은 13억 인구라는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 이외에 세계경제 부진에 따른 수출 둔화에 대비한다는 측면도 있음.

-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, 일본경제의 장기 침체, EU 경제의 부진, 아시아 각국 경제의 불안정 등은 중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.

□ 소비의 GDP 기여도는 60%에 달하고 있는바, 소비촉진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.

- 중국의 저축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나 투자 및 소비로 적절히 전환되지 않고 있음.

- 또한 적극적인 투융자 시스템을 개선, 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추진할 방침임. 즉, 중소 및 민영기업에 대한 융자 서비스를 확대하여 민간투자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.

나. 경제 내부의 불확실성 해소 필요

□ 첫째,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지 여전히 미지수임.

- 현재 중국의 투자수요는 재정지출 증가뿐만 아니라 비국유부문의 투자 증가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데, 현재의 수요와 공급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비국유부문의 지속적인 투자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움.
- o 금년 1월과 2월의 소매물가지수는 각각 0.5%, 1.6% 하락하였으며, 소비자물가는 각각 1.6%, 0% 증가하였음.
- o 한편, 1~2월 외국인투자는 계약액 및 실행액 모두 46억 달러에 달해 전년동기 대비 47.1%, 24.2% 증가하였으나, 중국산 제품 및 원자재 의무 구매 규정 폐지가 국내 투자수요를 유발시킬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함.

□ 둘째, 소비의 안정적 증가 역시 불투명함.

- 금년도 국가 공무원 급여 인상에 따라 소비 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, 의료, 교육 등 사회보장제도 미비 및 미래 지출에 대한 부담 증가는 여전히 주민 소비 진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.
- o 중국정부는 농민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, 농민의 수입 증가 등 효과가 가시화 될지는 미지수인바, 농민 소비는 작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.

□ 셋째, 수출은 불확실한 외부환경에 직면하고 있음.

- 금년도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등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고 있어 중국정부는 금년도 수출 증가율을 작년의 31.5%보다 훨씬 낮은 8%로 예상하고 있음.

4. 평가 및 시사점

□ 중국경제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.

- 7% 수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률 유지
 - 이는 2010년에 2000년 GDP의 2배를 실현하고 매년 증가하는 신규 노동력 약 1,400만 명의 고용을 확보하기 위한 최저 성장률임.
- 확대 재정정책과 적정 통화정책의 조화
 - 지속적인 경제개혁에 따른 경기 둔화, 실업률 증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재정지출을 증가시키지 않을 수 없는바, 이에 따른 적절한 통화정책 유지가 필수적임.
- 수입 증가 및 균형 분배의 달성이 주요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.
 - 특히 농민의 실질소득은 1996년 전년대비 9% 증가한 이래, 1999년 3.8%, 2000년 2.1% 증가에 그쳤는바, 농민소득의 증가율 둔화는 단기적인 경제성장 및 개혁에 부담이 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사회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음.
- 사회보장제도 확립. 금년내 최소한 2,000만 명의 근로자가 국유기업에서 정리해고될 것으로 예상되는바, 사회안정망 건설이 시급함.
- 수출증치세 환급 제도의 개선. 현재 15%선인 환급율을 현실화해야 함.

□ 이 밖에도 중국정부는 인민폐 환율 안정, 수출 경쟁력 제고, 채권시장 구조조정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.

- 최근 戴相龍 인민은행장은 무역흑자가 줄어들더라도 외국인 투자와 외환보유고가 증가한다면 환율은 안정될 수 있다며 자본항목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역설하였음.
- 또한 중국정부는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, 국유기업의 경영 시스템 개선, 사영 및 개체기업의 수출 지원책 마련, 대외무역체

제의 합리적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.(***)

중국경제뉴스

1. 戴相龍 인민은행장, 상업은행의 上場 촉진 방침 천명

- 戴相龍 중국인민은행장은 지난 5월 8일 홍콩에서 개최된 포천포럼에서 상업은행의 주식제 개조와 주식시장 상장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발언함.
- 戴 행장은 또한 최근 수년간 7차에 걸친 금리인하가 디플레이트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민간자금의 주식시장 유입을 촉진시켰다고 평가함.
- 이밖에 자본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인민은행은 증권회사와 기금관리회사의 증권시장을 통한 용자와 주식담보대출을 허용, 현재는 주택대출의 증권화를 위한 준비중에 있다고 함.
- 한편 현재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3,500억 달러, 외채는 1,400억 달러, 실제외자도입총액은 약 5,000억 달러, 고정자산투자중 외자비중은 10%에 달함. 또한 외환보유고, 상업은행의 해외투자 및 예금, 기업의 해외투자 등 3가지를 합친 외화 자금은 2,800억 달러임.(金融時報, 2001. 5. 10)

2. 周小川 證監委 주식, 중국 대기업을 해외상장 및 용자 장려

- 2001년 홍콩 포천포럼에 참석중인 周小川 證監委 주석은 대기업을 해외상장을 통한 용자를 장려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정책이라고 하면서 이는 외자유치뿐만 아니라 기업의 관리수준 향상 및 국제시장 진출에 유리하다고 강조함.
- 금년도 증감위의 목표는 증권감독기관의 범집행을 강화하고 기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상장회사에 대한 감독관리를 추진하는 것임.
- 구체적으로 금년중에 상장회사에 대한 감독관리 기준 설정, 국제회계기준 도입,

회사 상장자료와 정보공개 기준 확정, 시장감독관리메커니즘 완비를 통한 주가 통제 및 내부거래에 대한 징계에 주력할 것임.

- 이밖에 신주식의 상장제도와 관련, 周주석은 대형 신주식의 상장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용자도 가능하며 동시에 기존의 신주 배당액제도가 철폐되어 조건에 부합하기만 하면 上海와 深圳거래소에서 모두 상장할 수 있다고 함.(國際商報, 2001. 5. 10)

3. 부실자산 처리를 위한 새로운 방안 마련

- 5월 10일 개막된 세계신경제포럼과 국제금융신용 및 상업연합회의에서 中國長城資產管理公司 王興益 총재는 현재 중국은 부실자산 처리를 위한 새로운 분야를 개척중이라고 하면서 부실자산을 자원으로 하는 새로운 시장의 설립과 함께 외자의 부실자산 처리 개입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함.
- 지난 1년간 자산관리공사는 국유기업개혁 지원, 금융리스크 해소, 경제구조조정 촉진 등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는바, 지난해 처리한 부실자산이 732억 원에 달함.
- 특히 ‘채권의 주식전환’의 성공에 힘입어 많은 국유기업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됨.
- 장성자산관리공사는 매입한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매각, 자산개편, 채권의 주식전환, 증권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.
- 현재 정부는 자산관리공사의 주주권과 채권의 해외매각을 고려하고 있는바 지금이 바로 외자의 중국 자산처리 개입에 가장 적합한 시점임. (國際商報, 2001. 5. 11)

4. 외국기업의 국유기업 개혁 참여 확대

- 王萬賓 국가경무위 부주임은 최근 상해에서 열린 ‘2001중국투자포럼’에서 ‘10·5’계획의 실시와 더불어 중국이 향후 시장건설과 기업개혁 및 외자유치 등 측면에서 개방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함.
- 외국기업 특히 다국적 회사의 전통산업 개조와 개편 참여 및 고신기술 산업투

자와 수출형 산업투자를 장려함으로써 중국의 산업구조 조정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촉구함.

- 조건을 갖춘 기업의 대외 주식 발행을 장려하고 인수·합병·벤처투자·투자기금 등 방식의 채용하여 중외 중소기업간 협력을 장려 및 촉진
- 서비스업의 외자유치 비중 향상
- 경제특구와 포동신구 및 연해지역의 우위를 발휘하여 외자유치 수준 향상
- 중서부지역 특히 중서부지역의 낙후된 공업기지 개조와 기초시설 건설, 환경보호, 광산과 관광자원개발, 우위산업 발전 등 분야에 대한 더욱 많은 외자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장려정책 실시 (經濟導報, 2001. 5. 12)